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허베이대학교 河北大学	기숙사비	한화 약 82만원/한 학기
파견지역	허베이성 바오당시 河北省 保定市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V )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2학기 / 2018-1학기	기타비용	월 생활비 약 40만원

##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성별		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8.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우선 출국 후 대학교에 도착해서 입학 절차를 밟으면, 정확한 개강일자를 알려주고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습니다. HSK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레벨테스트 없이 자격증 수준에 맞는 반을 배정해줍니다. 반은 초급A/B, 중급 A/B, 그리고 고급반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수업 자체의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본인 원래 수준의 수업을 듣는다면 살짝 쉬운 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수강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처럼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시며, 수강과목에 따라 각 과목 선생님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초급 A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됩니다. 교환학생을 통한 수업의 수강생들은 모두 유학생이지만, 학교에 요청을 하면 본과 수업 청강도 가능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존재하며 중간중간 발표 수업이나 작문, 중국어 대화 등 부수적인 과제가 존재합니다. 성적 산출방법도 수업마다 다르며 어느 교육기관이 그러하듯 출석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2과목, 2시간씩 진행하며 오후수업은 선택적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반마다 수강과목이 다르지만 보통 말하기(说话), 듣기(听力), 작문(作文), 독해(阅读), 문법(语法), 그리고 초급 반에는 한자쓰기(写汉字)수업이 있습니다. 독해 수업의 경우 HSK 시험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학능력의 수업보다는 중국 문화나 역사 혹은 중국어 토론 등 심화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업 진행도중 가끔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와서 참관하기도 하며, 자주 학생들에게 말을 걸며 원활한 소통능력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배운 것들을 바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수업시간 내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화적 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는 환경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현지 중국인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있는 내용 이외에 틈틈이 생활 중국어나 실용회화 같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상황들도 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교육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적응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며,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할수록 개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허베이 대학교는 허베이성 바오딩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외곽 같은 곳입니다. 우선 바오딩은 공장지대가 많은 원인으로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힘들며, 비가 오는 날도 극히 드뭅니다. 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엔 많이 추운 반면 여름엔 습도가 낮아서 40도 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더운 느낌은 없습니다. 바오딩에서는 버스를 자주 타고 이동하지만, 물가가 싸기 때문에 택시 이용도 빈번하게 가능합니다. 주위 백화점이나 시내까지 버스는 한화 약 200원, 택시로는 2000원 이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처 대도시인 북경과 천진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4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오딩이 비교적 중국 본토 향이 강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없기때문에 현지를 제대로 느끼기엔 좋다 하더라도 향수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엔 북경, 천진과 멀지 않아 쉽게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베이 대학교 근처에는 위화루(裕华路)와 완보(万博广场) 두 곳의 변화가가 있는데 위화루는 구시가지, 완보는 신시가지입니다. 위화루에서는 저렴하게 쇼핑하거나 스타벅스 이용, 많은 현지 식당에서 식사, 영화관람이 가능하며 완보는 큰 백화점이 있어서 앞서 열거한 것 이외에 더 문화적이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완보

지하에는 월마트도 있어 보통 장을 보거나 생필품 구매할 땐 그곳을 자주 이용합니다. 허베이 대학교 우측으로 도보 10분 지점에 있는 진샤오광장(军校广场)내에 후이요우마트(惠友超市)도 있어 굳이 월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시내가 아니어도 대학교 주변에 식당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대학교 주위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중국 유학생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과 유사하지만 생활 환경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중국 내에서 자국우월주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외의 소셜 네트워킹 등의 유선망은 대부분 차단 되어있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마저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커피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페가 스타벅스 뿐이며, 신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응이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거나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외국어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화시도를 위해서는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라면 위생문제에 놀랄 수도 있으며, 지역별 빈부격차도 꽤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겠다 할 땐, 선천적으로 중국 환경이 본인과 잘 맞는 경우 아니고 서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현지 중국인처럼 지내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 좋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한화 약 82만원/한 학기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 기숙사 출입문 통제시간 : 오후 11시 30분 2. 수도 및 전기세 매 월 1회 무료, 초과시 부과요금 3. 세탁실 및 주방 공동사용		
주요사항	1. 승강기 없음 2. 외국인들 수면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 (밤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3. 세탁실사용을 위한 동전 필요 4. 수도 및 전기세는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 5. 처음 기숙사비 납부 시 보증금 500元 필요 6. 와이파이 설치는 별도 7. 기타 제공된 가구 외에 모두 별도 구입해서 사용해야함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1. 2인 1실에 맞게 침대, 책상, 옷장이 2개씩 있습니다.
2. 각 방마다 미니 냉장고, TV, 전화기, 중간 탁상,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 1명당 이불, 베개, 시트가 제공됩니다.
4. 이외 필요한 생필품은 자가 구매 해야 합니다.



5. 가구 배치는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6. 각 방마다 화장실이 내부 배치 되어 있습니다.
7. 겨울에는 라디에이터가 자동 가동됩니다.



1. 물은 세면대와 입식 샤워기 두 곳에서 나옵니다.
2. 세면대의 물은 무제한 제공입니다.
3. 입식 샤워기의 물은 인당 2톤씩 제공됩니다.
4. 수건이나 샤워도구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5. 물은 물탱크에서 쓰는 방식이라 가끔 절수 현상이 있습니다.
6. 물이 끊길 때를 대비해 바가지 1개씩을 필요로 합니다.
7. 선반은 거울 밑과 수건걸이 2개가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1. 기숙사 내부 복도입니다.
2. 복도에 있는 물건은 거의 다 개인물품 입니다.
3. 6층엔 창고가 있어 안 쓰는 큰 짐은 창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4. 방음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야합니다.
5. 전체 정전이 일어나면 복도의 보조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1. 세탁실 이외의 빨래 건조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복도에 건조대를 놓고 이용해야 합니다.
2. 신발장도 기숙사 내부에 따로 없기 때문에 복도에 신발장을 설치해 이용합니다.
3. 물품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 입주 시 제공되는 수도 및 전기 충전카드입니다.
2. 정전 및 절수가 되면 1층 카운터에서 충전을 요청 하면 됩니다.
3. 월 1회 무료 제공이고 해당 달 안에 사용초과가 되면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4. 특정 전량 이상의 전기는 기숙사 내부에서 사용불가 합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허베이대학교는 본교, 신교 2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두 캠퍼스 모두 도서관이 있습니다. 본교 도서관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관련 책도 많고, 분위기 자체가 공부 분위기라 학습에는 적합합니다. 본교보다는 신교 도서관이 건물 외관도 그렇고, 내부 환경적이 측면에서 쾌적합니다.



기숙사 내부의 세탁실입니다.  
 이용요금은 4元이고, 동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탁기 품질이 좋지는 않아서 세탁물이 망가지는 흠이 있지만, 세탁 자체는 잘 되는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은 없습니다.  
 기기도 6대나 구비되어 있어서, 밀리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교 운동장입니다.  
 축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넓으며, 유학생 기숙사와 가까워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면 무술이나 태극권을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으며, 어느 대학교 보다는 고등학교 운동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 교환학생 피견 수기

다시는 경험 해 볼 수 없을 좋은 추억과 삶의 일부분을 만들 수 있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선 해외를 가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 더러, 갔다 하더라도 발생할 앞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감정이 본인뿐만 아닌 대부분 사람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도전 하기조차 겁 먹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허베이대학교에서의 생활은 구십 퍼센트 이상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배우는 언어, 직접 겪는 문화가 기존의 틀에 잡힌 생각의 확장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타국의 유학생 및 타 지역 한국인 유학생들 과의 교류도 보다 넓은 식견을 만들어 주었으며, 문화이해의 수준도 매우 향상 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기간 한국에서 똑같이 공부했다면 언어실력 정도야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값진 문화 이해는 아마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유학생생활을 살펴보면 학내에서 좋은 중국인 언니들과 만나며 친구처럼 지냈던 것도 그렇고, 학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짧으면 짧은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어느새 인가 그들은 소중한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교환학생 도중 특히 좋았던 점은 중국어를 배워서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던 점인데, 주위 친해진 중국 친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첫 여행 같은 불안함과 걱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중국 패키지 상품을 통해 중국 내의 몽골 여행을 간 적이 있었

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에게 질문을 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같이 간 국적과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과도 전혀 거리낌 없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외에 북경이나 칭다오, 천진, 상하이 등 여행을 갔을 때도 위험하다는 생각보단 되려 좋은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대학교 수업때도 배울 수 없었던 현대 포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바오딩 내의 타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향수병이 잠깐 왔던 때, 물론 처음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었을지라도 그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 또한 밥을 먹을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배려하고자 하는 행동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 극복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경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잠시 방문 해야 할 때, 그 친구가 순순히 도와주겠다고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둘이서 종일 얘기를 많이 하며 도움도 많이 받고 친분도 두터워졌었습니다. 친구와는 아직까지도 위챗으로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곳이든 자신들의 틀 밖의 것에 경계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 합니다. 중국내에서도 그렇고 문화를 배우고자 갔던 본인도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한 권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는데,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릇 또는 컵을 얹은자리에 그대로 놓고 간다 던지 무단횡단을 한다 던지 한국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문화적 차이를 제외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었습니다.

애를 먹던 점도 있었는데, 출국 전에 중국어 실력도 매우 낮은데다, 해당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검색하고 수소문해봐도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운이 좋게 같은 과 선배가 이미 파견이 돼 있는 상태여서 초반에 걱정이 컸던 일이 잘 처리는 되었지만, 중국 도착 후 공항에서의 픽업서비스도 없었고 대학교 오피스에서 공지전달 같은 것도 매우 느리고, 걷어가야 할 돈만 계속 재촉하고 공부를 하러 온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운데,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만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전체적인 중국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긴 했지만 인복이 좋았던 건지 주위 한중 불문하고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전부 해결은 됐습니다. 허베이대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이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길을 잘 닦아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같은 사람의 추가적 피해가 없길 하는 마음에 파견 도중 정보 제공 블로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나쁘지 않은 것은 해당 학교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고 대충 생활환경에 파악이 된다면 또 그만큼 자유롭고 제약도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파견을 무사히 종료하고, 지금에 와서 더 열심히 밖으로 나가보고 더 활발하게 많이 교류를 더 해볼 걸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잠깐 드는데 누군가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특히 타국생활은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 공부, 문화 어떤 것이라도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항상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은 크고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